

교육 전문직원 '정책 설계자'로 전환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수업·생활교육 컨설팅 중심 학교 지원형 조직으로 개편할 것"

이남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육청 교육전문직원을 행정 중심 조직에서 벗어나 공교육 혁신의 핵심 주체로 전환하는 내용의 '교육 전문직원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13일 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사 등 교육전문직원의 역할을 수업과 생활교육 컨설팅 중심의 학교 지원형 조직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청이 바뀌지 않으면 교실은 바뀌지 않는다"며 "교육 전문직원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역할과 기능을 현장 중심으로 반드시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기존의 정기 방문 점검과 실적 중심 평가 체계를 벗어나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 수업 설계와 학생 지도 지원을 함께하는 컨설팅 체계 구축이다.

이를 위해 모든 공문과 신규 사업에 '학교 업무영향 분석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사전에 차단하는 업무 막기 책임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성과 평가 기준도 문서 생산량이 아닌 학교 만족도와 학력 개선, 교육복지 성과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육전문직원을 정책의 단순 집행 대상이 아닌 정책 설계 주체로 격상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 전문직업 정책협의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협의회 제안 사항에 대해 교육청이 공

식적으로 반영 여부를 회신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정책 현안은 교육감이 직접 검토하고 답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전문직원이 정책 전달자를 넘어 교육 정책 공동 설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국내외 교육혁신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장기근속 전문직원을 대상으로 정책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인사 시스템 역시 전문성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선발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교육과정, 디지털 행정 등 분야별 전문 트랙을 도입해 전공과 역량이 인사에 직접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입직부터 퇴직 또는 현장 복귀까지 이어지는 중장기 경력개발 로드맵을 구축해 안정적인 정책 연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교육전문직을 공교육 혁신의 실행 중심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학교별 학습 위험군 조기 진단 시스템 구축, AI·디지털 교육 허브 기능 강화, 교사 대상 수업 코칭 체계 운영, 다문화·특수·위기 학생 통합 지원 등도 포함됐다.

이 예비후보는 "현장의 목소리가 곧 정책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 전북교육의 변화를 교실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이남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육청 교육전문직원을 행정 중심 조직에서 벗어나 공교육 혁신의 핵심 주체로 전환하는 내용의 '교육 전문직원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전주 학교업무지원센터 맞춤형 지원 '호응'

올해 1분기 업무 지원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누적 4.53점

업무 부담 절감, 신속 지원 강화... 교직원 교육활동 집중 환경 조성

전주교육지원청 학교업무지원센터가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맞춤형 지원으로 교직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센터가 실시한 2026년 1분기(1~3월) 업무 지원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누적 4.53점을 기록하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번 조사는 전주지역 학교 관리자와 교사, 행정직원 등 실제로 센터 지원을 받은 289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는 현장 중심 행정 서비스가 학교의 실질적인 업무 부담을 낮추는데 효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줬다.

설문에 참여한 교직원들은 높은 만족도의 주요 이유로 업무 부담 경감과 신속한 업무 처리, 전문성 확보, 예산 절감 등을 꼽았다.

특히 단순한 인력 지원을 넘어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업무를 세밀하게 지원하는 전문 체계가 교직원들이 교육 활동 본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신학기 지원을 받은 한 초등학교 교사는 "1~2월과 3월은 수업 준비와 상담, 행정 업무가 겹쳐 가장 바쁜 시기인데, 센터에서 기간제 교원 채용과 교실 재배치 업무를 지원해 준 덕분에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와 수업 설계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며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현재 학교업무지원센터는 인력 채용 지원을 비롯해 교육환경 정비, 학교 맞춤형 업무 지원 등 총 26개 분야에서 촘촘한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어린이 통학버스 665대 내달 15일까지 안전점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상태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5월 15일까지 상반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도내 381개 학교, 총 665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여부를 비롯해 차량 구조 및 안전장치 기준 준수 여부, 종합보험 가입 상태, 운전자와 운전자 동승보호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특히 올해는 하차 확인장치와 블랙박스 정상 작동 여부를 포함한 총 33개 항목에 대해 차량 안전장치의 적정 설치 및 작동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전수 점검 방식으로 실시한다.

각 시·군 교육지원청 역시 관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자체 계획에 따라 별도 점검을 진행한다. /오상근 기자

신규 영양교사 현장 적응, 선배 교사가 돕는다

전북교육청, 멘토-멘티 결연 급식 컨설팅단 발대식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신규 영양교사의 현장 적응을 돕기 위해 선배 교사와의 멘토링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전북교육청은 13일 전주비전대학교 행복기숙사 컨벤션홀에서 2026 학교급식 종합컨설팅단 발대식 및 멘토-멘티 결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신규 및 저경력 영양교사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신규 임용 및 기간제 영양교사 등 멘티 15명을 비롯해 학교급식 컨설턴트, 멘토교사, 급식 분야별 강사단 등 총 6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행사에서는 '건강한 관계 형성'과 소통을 위한 영양교사의 리더십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3일 전주비전대학교 행복기숙사 컨벤션홀에서 2026 학교급식 종합컨설팅단 발대식 및 멘토-멘티 결연식을 개최했다.

주제로 학생과 학부모와의 소통 역량을 높이는 강의도 함께 진행됐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멘토-멘티 결연을 통해 신규 영양교사와 경험이 풍부한 선배 교사 간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학교급식 종합컨설팅단 운영을 통해 급식 업무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교 단위의 관리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유아 정서·심리 지원' 지역별 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유아의 정서와 심리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별 설명회를 시작했다.

전북교육청은 13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유아 정서·심리 지원사업'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 설명회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완주·무주·진안 지역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14일에는 전주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전주 지역 설명회가 이어진다.

이후 군산을 비롯해 남원·순창·임실·장수, 고창·정읍, 김제, 부안 등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유아 정서 검사 도구 활용 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맞춤형 상담 연계, 학부모 및 교사 상담 지원 방안 등을 안내한다. /오상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울 파란사다리사업 운영대학 선정

전주대, 캐나다 나이아가라대학과 연계 특화 프로그램·취약계층 글로벌 인재 양성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는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2026년 파란사다리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파란사다리 사업은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 대학생에게 해외 어학연수 및 글로벌 체험 기회를 제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성장의 사다리를 마련해 주는 국가 지원 사업이다. 전주대는 이번 선정을 통해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글로벌 진로탐색 △해의 산업·문화 체험 △학생 주도 프로젝트 등 특화형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파견 전 집중 어학 교육 및 글로벌 매너 교육을 실시하고, 귀국 후에는 성과 공유회와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연수 경험이 실제 취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병행한다.

전주대학교는 2026년 하계 방학 기간 동안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재학생 25명을 4주간 캐나다 나이아가라대학으로 파견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학생을 우선 선발할 사업 취지를 적극 반영하며,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항공료·연수비·숙비비 등 연수 경비 상당 부분이 지원된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어학 학습을 넘어 전주대학교만의 차별화된 '글로벌 커리어 로드맵'에 따라 △

글로벌 진로탐색 △해의 산업·문화 체험 △학생 주도 프로젝트 등 특화형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파견 전 집중 어학 교육 및 글로벌 매너 교육을 실시하고, 귀국 후에는 성과 공유회와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연수 경험이 실제 취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병행한다.

한편 전주대학교는 2026년 4월부터 참여 학생 모집에 나서며, 이번 사업을 일회성 연수에 그치지 않고 대학의 국제화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삼을 계획이다. /김재훈기자



우석대학교는 태권도학과가 미국 유타대학교와 교수·학생 교류 및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유타대학교를 방문한 우석대학교 대표단.

태권도 중심 교육·연구 협력 확대

우석대 태권도학과, 미국 유타대와 국제교류 협약 체결

우석대학교가 미국 유타대학교와 국제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태권도를 중심으로 한 교육·연구 협력 확대에 나섰다.

우석대학교는 태권도학과가 미국 유타대학교와 교수·학생 교류 및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별도의 대면 행사 없이 서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7일 테일러 랜달 유타대학교 총장이 협약서에 먼저 서명한 데 이어, 박노준 우석대학교 총장이 13일 서명하면서 최종 체결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교수와 연구원, 학생 교류를 비롯해 공동 연구 및 학술

활동 추진 등이다. 특히 유타대학교는 이번 협약에 따라 더운 학기부터 태권도 교과목을 새롭게 개설할 예정이며, 우석대학교 태권도학과와 연계한 교환교수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도 추진할 계획이다.

양 대학의 교류는 지난해 9월부터 본격화됐다. 당시 우석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진과 시범단 학생들이 유타대학교를 방문해 태권도 시범을 선보였고, 이를 계기로 국제교류 협력 논의가 시작됐다.

이어 같은 해 11월 양 대학 관계자들이 화상회의를 통해 협약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며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오상근 기자

급식종사자 폐암 정기검진 지원

전북교육청, 내일부터 9월 말까지 저선량 흉부 CT 실시 검진 희망자 총 2286명... 정밀검진비 최대 120만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 보호와 폐암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검진 지원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도내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폐암 정기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진 대상은 도내 국·공·사립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교육행정기관 소속 급식종사자 2947명 가운데 검진을 희망한 2286명이다.

이번 대회에서 전북기계공고는 금메달 7개, 은메달 6개, 동메달 7개, 장려상 3개를 획득하며 총 25명의 학생이 입상하는 성과를 올렸다.

입상 학생들은 오는 8월 인천광역시에서 열리는 제1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북 대표 선수로 출전해 전국의 숙련기술인들과 다시 한번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23년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도내 12개 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급식종사자의 폐 건강 보호 체계를 구축해 왔다.

올해 검진은 해당 조례에 따라 2년 주기로 시행되는 정기검진이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정기검진 외에도 건강 상담과 생활습관 개선 지도 등을 병행해 급식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장경단 학교안전과장은 "학교 급식종사자는 조리 작업 특성상 폐 건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정기검진이 폐암 조기 발견과 치료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건강 인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